

나주 원도심 상권·남평읍 살리기 나선다

시,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지역 자원 연계 차별화 활성화 등 5개년 전략 마련

나주시가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에 나섰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상인회 대표와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대응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자율상권구역 지정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과업 범위는 금남동과 성북동, 송월동

일원 원도심 상권과 남평읍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실률과 상권 현황 조사, 소상공인 경영 실태 분석, 상인과 시민 의견 수렴, 상권활성화사업 발굴, 환경개선(H/W)과 활성화(S/W) 전략 수립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소비 패턴 변화와 상권 분산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활성화 전략 마련에 중점을 뒀다. 나주시는 그동안 상권 이해관계자 회의와 상인 대상 조사,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에 반영해 왔다. 시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을 보완 및 확정하고 자율상권조합 설립과 자율상권구역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27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원도심은 나주시 경제와 생활·문화의 중심지이지만 최근 공실 증가와 유통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이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담양, '취약계층 긴급 생필품 지원' 밀착 복지 나선다



담양 대덕면 사무소에 마련된 그냥드림 부스 사진제공=담양군청

'그냥드림사업' 추진...2만원 상당 꾸러미 전달 담양군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생필품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을 추진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그냥드림사업'은 실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잡한 서류 없이도 긴급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밀착형 복지 서비스다. 기존 복지제도가 자격요건 확인 절차로 인해 실제 지원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선지급 후 행정' 원칙

에 취약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가구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근본적인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여기에 군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내 민간단체 및 기업들과 협력해 기부 물품을 확보하는 등 따뜻한 담양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심리적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냥드림사업이 따뜻한 손길을 먼저 내미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이사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화순천 일대 퇴적토 준설 및 지장물 제거 사업'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장비 무상 지원을 약속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화순군청

화순, 지방하천 화순천 준설사업 추진

전남 최초 민·관 협력 사례...주민 안전 강화 기대

화순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순천 일대 퇴적토 준설 및 지장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화순읍 다지리 386-7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화순천에서 이뤄진다. 하천 내 퇴적토와 무성하게 자란 잡목은 우수 흐름을 방해해 호우 시 수위 상승과 하천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군은 본격적인 우기 이전 통수 단면을 충분히 확보, 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남 첫 민·관 협력 혁신행정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은 사업

비 4650만원을 투입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가 3000만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무상 지원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군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 우려가 있던 인근 농경지와 주민 생활권의 안전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병 화순군 부군수는 "이번 사업은 행정과 건설업계가 손을 잡고 지역 현안을 해결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별교파크골프장이 지난 9일 임시 개장했다. 사진은 파크골프를 즐기는 이용객 모습. 사진제공=보성군청

보성, 군민 건강 증진...스포츠·관광 거점 도약

별교파크골프장 임시 개장...9월 정식 개장 목표

보성군은 최근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한 보성별교파크골프장을 임시 개장했다고 14일 밝혔다. 별교파크골프장은 별교읍 장양리 별교생태공원 일원에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조성됐으며, 총부지 9991㎡ 규모에 18홀과 휴게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시설이다. 임시 개장 기간에는 보성군민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를 통해 1일 30팀(12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 임시 개장을 통해 시설 이용 편

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점검한 뒤, 오는 9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및 정비 작업이 병행된다. 별교파크골프장은 설계 단계부터 전국 주요 파크골프장의 장점을 반영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을 살린 다양한 코스를 구현했다. 향후 각종 파크골프 대회 유치와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

를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장 인근에는 태백산맥 문화관광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별교 깎배기'가 있어 자연 경관과 지역 문화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별교파크골프장이 군민의 건강한 여가 공간을 넘어 전국 동호인이 찾는 스포츠 관광 명소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고흥, 청정 바다환경 조성·안전 조업 '온힘'

김양식 종료 후 페이구 수거

고흥군은 올해 김 양식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상에 유실된 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청정 고흥 바다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득량도부터 나로도 해역까지 김 양식 시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김 그물, 폐부표, 말뚝 등이 조류를 타고 흘러 들어 어선의 안전 항해를 위협함에 따라, '청정고흥호'를 매일 투입해 특별 수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양식 종료 후 수거되지 않은 폐그물은 조류에 휩쓸려 항해 중인 어선 스크루

에 감기는 사고를 유발하는 '바다의 지뢰'와 같다. 또한 파손된 페스티로폼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산 자원 생태계를 위협한다. 이에 군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종료 시기에 맞춘 '매일 출항'이라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해양사고 제로(Zero)를 달성하고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어업인 스스로가 발생시킨 폐구는 직접 책임지고 수거한다는 인식 전환과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여수, 주민참여예산 본격 운영...예산위원 위촉

여수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에서 정기 시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60명 및 지역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1부 위촉식에서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별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이어 열린 2부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는 예산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를 비롯해 우수사례 소개, 사업

제안서 작성 및 검토, 사업 선정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마련됐다. 제10기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4월 27일부터 2028년 4월 26일까지 2년이다. 위원들은 행정지원, 문화관광·해양, 복지·환경, 보건·상하수도, 농업, 도시건설·교통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위원 구성은 읍·면·동 지역회의 추천과 공개모집, 각종 단체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영암, 사계절 체류형 인문프로그램 운영

자연·사람·문화 주제...계절별 인문 콘텐츠 마련

영암군은 지역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체류형 인문프로그램 '영암 사계 인문학'을 운영한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15일까지 양일

간 카리타스 생태농원에서 '영암 사계 인문학' 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암 사계 인문학'은 계절별 주제에 따라 자연과 사람, 지역문화를 인문학적

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이 영암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체험하며 삶과 공동체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봄 프로그램은 '영암의 자연과 사람 기록하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생태농원 체험과 인문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여름에는 도갑사 템플스테이에서 인문학 '여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가을·겨울 프로그램까지

이어가며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문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영암 사계 인문학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채우는 배움의 시간이 될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인문 콘텐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